

# 「圓覺經」版本의 系統과 書誌的 特徵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Systems and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rinted Books of *Perfect Enlightenment-sūtra*

金 美 京 (Kim, Mi-Kyung)\*\*

姜 順 愛 (Kang, Soon-Ae)\*\*\*

## ◁ 목 차 ▷

- |                       |                  |
|-----------------------|------------------|
| 1. 序 論                | 4. 各 版本들의 書誌的 特徵 |
| 2. 「圓覺經」의 成立과 流通      | 5. 結 論           |
| 3. 「圓覺經」의 流通 및 版本의 系統 | <참고문헌>           |

## < 초 록 >

본 논문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간행된 「圓覺經」을 대상으로 문헌과 실물자료의 방증 및 전적조사를 통해 성립배경과 국내 전래경위 및 간행·유통 과정을 밝혔다. 현존하는 자료 중 간행기록이 있는 89종을 대상으로 계통별 분석을 하였고, 각 판본의 刊行者, 字體, 變相圖, 經版刊行秩에 대해서는 서지적 특징을 밝혔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1) 「원각경」의 판본은 고려시대에는 대장도감본, 우왕 6년(1380) 간행본, 송판번각본으로 나누어지고, 조선시대에는 간경도감본, 을유자본, 을해자본, 을해자번각본, 기타 판본으로 구분된다. 고려시대의 대장도감본은 고종 28년(1241)에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것이고, 우왕 6년(1380)본은 송나라 효종황제의 註와 이색의 발문이 실려 있는 희귀한 자료이며, 송판번각본은 14세기 송판본을 번각한 것이다. 2) 조선조의 간경도감본은 교장도감 번각본, 함허득통 주석본 및 번각본, 연해본 및 번각본으로 구분된다. 을유 한글자본은 정난종의 글씨를 자본으로 하였고, 을해자본은 세조와 강희안의 글씨를 자본으로 주조하여 인출한 판본이다. 을해자본의 번각본은 쌍계사본, 용복사본, 선암사본이 있고, 영정사본과 보현사본은 쌍계사본의 번각본이다. 기타 판본으로는 선조 2년(1569) 안심사본, 선조 21년(1588) 운문사본, 철종 12년(1861) 건봉사본과 고종 19년(1882) 감로사본, 고종 20년(1883) 봉인사본이 있다.

要語: 圓覺經, 圓覺經諺解, 佛陀多羅, 涵虛得通

\* 본 논문은 2010년 8월에 한성대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에서 인준된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보완한 것임.

\*\* 대한불교 진각종 도서실 사서(bloomx2@naver.com)

\*\*\*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지식정보학부 교수(h4085@hansung.ac.kr)

접수일: 2010년 9월 2일 최초심사일: 2010년 9월 17일 심사완료일: 2010년 9월 25일

<ABSTRACT>

The thesis investigates the process of publishing and distribution of *Perfect Enlightenment-Sūtra*, and the background of its formation and transfer to this country by examining circumstantial evidences and literature, and actually *Perfect Enlightenment-Sūtra* published from the Goryeo Dynasty to the Joseon Dynasty. Among the extant documents, 89 kinds with publishing records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and the bibliographic characteristics of each woodblock printed book was identified in terms of its publisher, typeface, an illustration of Buddhist preaching and Gyeongpanganhaengjil.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facts are uncovered:

1) The editions of *Perfect Enlightenment-sūtra* are classified into Daejangdogam version, the version of Uwang's 6th year(1380), and Songpan-beongak version in the Goryeo Dynasty, and in the Joseon Dynasty, they are divided into Gangyeongdogam version. Ulyuja version, Ulhaeja version, Ulhaeja reprinted version, and other version. Daejangdogam version of the Goryeo Dynasty was engraved in King Gojong's 28th year(1241) in Daejangdogam, and the version of Uwang's 6th year(1380) is invaluable, because it contains an annotation by Emperor Hyojong of the Song Dynasty in China and an epilogue of Yi Saek. Songpan-beongak version is a reprinted edition, based on the Songpan printed in the 14th Century.

2) In the Joseon Dynasty, Gangyeongdogam versions are divided into Gyojangdogambeongak version, Hamhadeoktong commentary version and beongak version, Eonhaebonn (Korean translation of Chinese text) and Beongak version. Ulyu Korean version is cast, based on the handwriting of Jeong Nanjong, Ulhaeja version is cast and published, based on the handwritings of King Sejo and Kang Huian. The reprinted edition of Ulhaeja version is divided into Ssanggyesa version, Yongboksa version, Seonamsa version and Yongjeongsa version and Bohyonsa version. The last one is a reprinted edition of Ssanggyesa version. Other woodblock printed versions are Ansimsa version of King Seonjo's 2nd year(1569), Unmunsa version of King Seonjo's 21st year(1588), Geonbongsa version of King Cheoljong's 12th year(1861) and Gamnosa Version of King Gojong's 19th year(1882), Bonginsa version of his 20th year(1883).

Key words: *Perfect Enlightenment-sūtra*, Eonhaebon, Bulthadala, Hamhadeoktong

## 1. 序 論

### 1.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圓覺經』은 당나라 永徽 年間(650-655)에 북인도 闍賓國의 승려 佛陀多羅에 의해 전래되었다고 전해지는 경전이다. 이 경전은 성립시기가 분명하지 않고, 전해지는 原典이 없어 위경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나 대승불교의 사상과 수행 방법에 대한 일체를 포함하고 있어 찬술의 진위와 관계없이 널리 읽혀왔다. 한국 불교에서는 『楞嚴經』, 『大乘起信論』, 『金剛經』과 함께 불교 講院의 四教科 과정으로 교육·학습되어 왔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신라 시대에 전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시대에는 종밀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知訥에 의해서 널리 유통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종밀과 涵虛得通의 주석서가 간행되었는데, 초기는 刊經都監을 중심으로 간행되었고, 이후 여러 寺刹에서 간행·유통되었다.

지금까지 『원각경』 전체 판본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여러 문헌과 실물자료 방증 및 典籍 조사를 통해 『원각경』의 성립과 유통을 고찰한 후, 전체 판본의 서지적 계통 및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 1.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본 연구는 전국의 도서관 및 박물관과 개인 소장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현존하는 『원각경』 자료 141종에 대하여 서지목록을 작성하고, 그 중 간행기록이 있는 89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불경목록, 사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원각경』의 성립배경과 국내 전래경위 및 간행·유통 과정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셋째, 분석대상 89종을 대상으로 간행자와 판종에 따라 고려시대는 대장도감

본, 우왕 6년(1380) 간행본, 송판번각본, 조선시대는 간경도감본, 을유 한글자본, 을해자본, 을해자번각본, 기타 판본으로 나누어 계통별 분석을 하였다.

넷째, 각 판본의 서지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간행자, 자체, 변상도, 경판간행질 별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간행기록이 없는 자료, 1910년 이후 간행본, 중국 및 일본 간행본, 필사본 등 52종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圓覺經」의 成立과 流通

### 2.1 「圓覺經」의 成立背景 및 장별구성과 수행체계

「圓覺經」의 원명은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고, 「大方廣圓覺經」, 「圓覺了義經」 등으로 불린다. 「원각경」은 원전이 전해지지 않아 정확한 성립시기를 알 수 없다. 여러 문헌에서 번역자는 인도의 불타다라라고 일치하지만, 번역 장소, 번역 시기, 번역시 참가자에 대한 주장이 다르다.

첫째, 번역 장소와 관련하여 「開元釋教錄」, 「續古今譯經圖紀」, 「貞元新定釋教目錄」, 「圓覺經大疏」의 <道銓法師疏>, 「宋高僧傳」에서는 번역 장소를 東都의 白馬寺라고 밝히고 있으나 「원각경대소초」에서는 潭州 寶雲寺라고 하여 번역 장소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번역 시기에 있어서 종밀의 「원각경대소초」 卷 四之上에서는 647년 설이라 밝히고 있고, 「大方廣圓覺經道場修證義」, 「圓覺經大疏」의 <道銓法師疏>에서는 693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47년 혹은 693년에 번역한 것이 사실이라면, 萬歲 元年(695)에 간행된 「大周刊定衆經目錄」에 수록되어 있어야 하지만 唐 玄宗 19년(730)에 간행된 「개원석교록」에서야 수록되어 있고, 번역 시기 조차 불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셋째, 번역시 참가자를 살펴보면 「원각경대소초」의 <堅志法師疏>에서는 翻

語沙門, 執筆弟子, 證義大德을 밝히고 있고, <도전법사소>에서는 증의대덕만을 밝히고 있으나 이 또한 일치하지 않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원각경」의 번역자는 인도의 불타다라이고, 번역 장소는 동도 백마사로 언급된 문헌이 많지만 「원각경대소초」에서는 담주 보운사라고 하였다. 번역 시기는 647년 설과 693년이 일치하지 않아서 정확한 추정이 어렵지만 넓게 7-8세기 사이로 추정할 수 있다. 번역시 참가자들에 대한 내용은 「원각경대소초」의 <견지법사소>에서는 翻語沙門, 執筆弟子, 證義大德을 밝히고 있고, <도전법사소>에서는 증의대덕만을 밝히고 있으나 일치하지 않으며, 이들의 행적 또한 확인이 어렵다.

이와 같이 「원각경」은 원전이 전해지지 않고, 번역 과정에 대한 이설로 僞經이라는 설이 제기되어 왔지만 찬술의 진위와 관계없이 「維摩經」, 「楞伽經」과 함께 선불교를 중심으로 유행하였고, 唐 중기 이후 화엄, 천태, 정토 사상과 융합되어 종파에 관계없이 널리 대중화 되었다.

「원각경」은 부처와 12보살이 주고받는 문답 형식을 통하여 체계적인 수행 漸次와 大圓覺의 妙理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종밀의 주석서를 중심으로 장별 구성 및 수행체계를 도표화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圓覺經」의 卷別概要 및 修行 體系

| 「원각경」의 장별 구성 |     |      |     | 「원각경」의 수행 체계 |     |   |         |
|--------------|-----|------|-----|--------------|-----|---|---------|
| 구 성          | 章   |      | 대 의 | 근 기          | 단 계 |   | 목 표     |
| 序 分          | 序 論 |      |     |              |     |   |         |
| 正宗分          | 1장  | 文殊   | 達天真 | 上上根機         | 頓   | 信 | 斷無明・顯佛成 |
|              | 2장  | 普賢   | 明緣起 |              |     |   |         |
|              | 3장  | 普眼   | 問觀行 |              | 上根機 | 漸 |         |
|              | 4장  | 金剛藏  | 辨三惑 |              |     |   |         |
|              | 5장  | 彌勒   | 斷輪廻 |              |     |   |         |
|              | 6장  | 清淨慧  | 分證位 |              |     |   |         |
|              | 7장  | 威德自在 | 起三觀 | 中根機          | 下漸  | 行 |         |
|              | 8장  | 辨音   | 修單復 |              |     |   |         |
|              | 9장  | 淨諸業障 | 除四相 |              |     |   |         |
|              | 10장 | 普覺   | 離四病 |              |     |   |         |
|              | 11장 | 圓覺   | 三期懺 | 下根機          |     | 證 |         |
| 流通分          | 12장 | 賢善首  | 請流通 |              |     |   |         |

『원각경』의 장별 구성은 道安(312-385)의 三分科設의 형식에 따라 序分, 正宗分, 流通分으로 체계화하였다.<sup>1)</sup> <표 1>을 참조하면, 서분은 서론에 해당하고 정중분은 1-11장이며, 유통분은 12장에 해당하는데, 무명을 끊고 성불에 이르기 위한 大義를 각 보살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원각경』의 수행체계는 궁극적인 목표를 ‘斷無明・顯佛成’에 두었으며, 信・解・行・證의 분류법을 수용하고, 교설 전체를 頓悟漸修로 받아들여 ‘원각묘심’을 얻는 과정을 上上, 上, 中, 下로 구분되어지는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sup>2)</sup>

## 2.2 『圓覺經』의 傳來와 流通

대승사상의 핵심을 집약하고 있는 『원각경』은 당시 중국에서 선종이 성행하면서 널리 읽혀졌고, 이러한 중국불교의 영향 아래 한국불교는 『원각경』에 주목을 하게 되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전래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신라시대 승려인 惠居(899-944)의 전기 가운데 『원각경』을 강의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시대에 이미 전래된 것으로 여겨진다.<sup>3)</sup>

고려시대에는 義天의 『新編諸宗教藏總錄』을 살펴보면, 당시 종밀의 저작 외에도 堅志, 淨源, 大軀, 德素, 法圓, 善聰, 仲希, 道璘 등의 저작이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知訥이 『원각경』을 신봉하여 ‘了義經’이라 칭한 뒤 널리 읽혀지게 되어 고려시대부터 본격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조에는 세조 연간(1455-1468)에 간경도감을 시작으로 이후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 개관되어 조선조 후기까지 꾸준히 간행·유통 되었다.

1) 조운호, “종밀의 『원각경』 해석에 보이는 제 사상의 수용,” 『범한철학』 45(2007), 92.

2) 조운호, 전거서, 92.

3) 허홍식, “惠居國師의 生涯와 行績,” 『한국사연구』 52(1986), 45.

### 3. 「圓覺經」의 流通 및 版本의 系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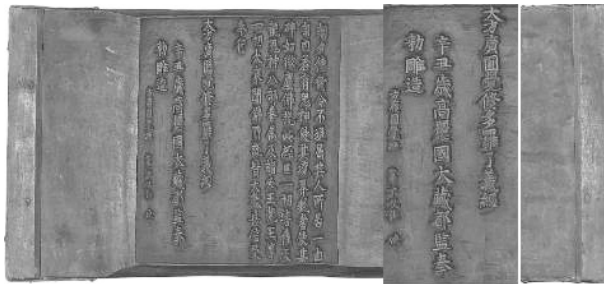
#### 3.1 고려시대 간행본

고려시대에 간행된 「원각경」을 간행자와 판종에 따라 나누어 보면, 대장도감 간행본, 우왕 6년(1380) 간행본, 송판번각본으로 구분된다.

##### 3.1.1 大藏都監本

현존하는 판각 중 시기가 가장 이르며, 고려 고종 28년(1241) 大藏都監에서 八萬大藏經 조성 시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해인사에서 소장하고 있다.

목판의 函次는 使이고, 행자수는 권수와 본문은 22-23행 14자, 권말은 11행 14자이다. 총 1권 20판 40면으로 각수 周甫가 20판 전체를 판각하였다. 경판 끝에 ‘辛丑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彫造’라는 간행기록이 판각되어 있어 고종 28년(1241)에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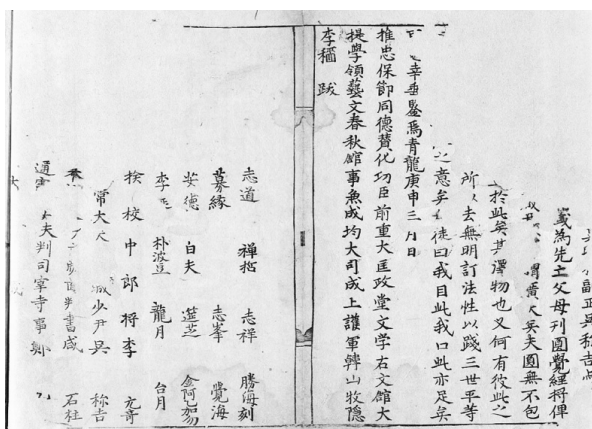
<그림 1>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木板 및 刊記(海印寺 所藏)

이 판본은 좌우 11행과 12행으로 반을 접어 절첩장 형식으로 제작하였는데, 이 판목에서 인출한 초인본은 남아있는 것이 없고,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후대에 인출된 것이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2종이 남아있다.

### 3.1.2 高麗 禡王 6년(1380) 刊行本

高麗 禡王 6년(1380)에 간행한 판본은 卷首에 裴休(791-870)가 저술한 <大方廣圓覺修了義經略疏>가 실려 있으며, 이어서 중국 南宋 孝宗皇帝(1162-1189)의 註가 기록되어 있다. 卷末에는 李穡(1328-1396)의 발문과 시주질, 간행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권말의 간기 및 시주질 등을 살펴보면, 고려 우왕 6년(1380)에 經書比丘 宗咄이 필사에 참여하고, 志峯, 覺海의 募緣에 의해서 通憲大夫 判司宰寺事 鄭□□와 咸石柱, 奉常大夫 … 少尹 吳稱吉, 檢校中郎將 李元奇 등의 시주로 志道, 禪指, 志祥, 勝海가 판각하여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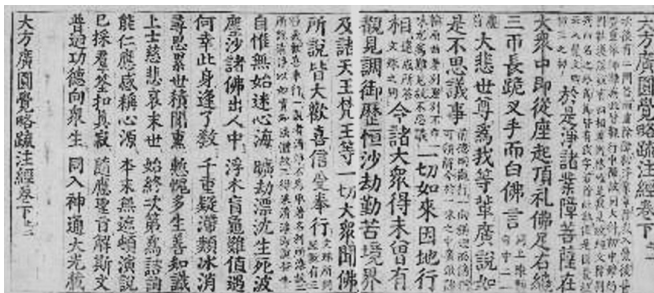
<그림 2> 高麗 禡王 6년(1380) 刊行本 跋文(東國大學校 所藏)

이 판본은 독자적인 板下本을 마련하여 간행한 것이 특징이며, 卷首에 중국 효종의 註가 있고, 권말에는 이색의 발문이 실려 있어 그 가치가 높다.

김민영 소장본(보물 제1518호) 1종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간기는 남아 있지만 훼손이 많아 본문 및 권말 부분의 일부는 식별이 어려운 상태이다.

### 3.2 宋板翻刻本

송판본각본은 권말에 跋文과 刊記가 없어 정확한 刊印시기는 알 수 없으나 송나라에서 보낸 「大方廣佛華嚴經疏」의 목판에서 인출한 간행본(보물 제891호)과 판의 형식, 자체, 판각 기법 등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14세기에 송판본계를 번각한 것으로 여겨진다(그림 3 참조).<sup>4)</sup>



<그림 3> 보물 제1171호 「大方廣圓覺略疏注經」

이 판본에 나타나는 구결의 시기는 14세기 중·후반으로 볼 수 있으나 14세기 중엽 이전에만 나오는 ‘-ㄱ ㄴ ㄷ ㄹ-’과 같은 구결토와 15세기의 언해문에서 간혹 발견되는 ‘밍가름글흔니라’, ‘因인들 아라’와 같은 석독구결의 흔적을 반영하는 복합토가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다.<sup>5)</sup>

「新編諸宗教藏總錄」에는 ‘略疏 四卷 惑 二卷’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현존본은 上之一, 上之二, 下之一, 下之二로 구분되어 총 7종이 여러 곳에 분산·소장되고 있어 이를 합치면 4권 4책의 전질이 된다.

현재 전해지는 7종 중 기림사 소장본은 경주 기림사의 비로자나불 복장 전적 54종 71책(보물 제959-2-24호) 중 하나이며, 관문사 소장본(보물 제963호)은 권자본 형식으로 인출된 것을 포배장 형식으로 장정한 것이고, 성보문화재단 소장

4) 서울시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문화재』 4 (서울: 서울특별시, 2003), 154.

5) 황선엽, “一蓑文庫本「大方廣圓覺略疏注經」,” 『口訣研究』 1(1996), 101-103.

본(보물 제1171호)은 호접장의 형식을 하고 있다.

### 3.3 朝鮮時代 流通 版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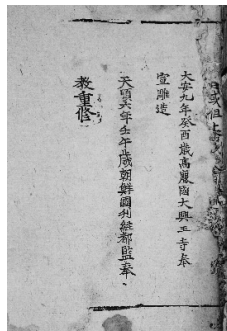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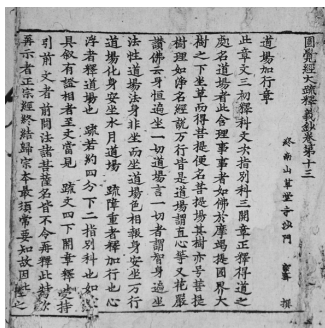
조선시대에 간행된 『원각경』은 간행자 및 판종에 따라 간경도감본, 을유 한글 자본, 을해자본, 을해자 번각본, 기타 판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3.3.1 刊經都監本

조선시대 刊經都監에서 간행된 『원각경』의 계통을 살펴보면, 세조 8년(1462) 교장도감 번각본, 세조 10년(1464) 함허득통 주석본 및 번각본, 세조 11년(1465) 『원각경』 언해본 및 번각본으로 나눌 수 있다.

##### 3.3.1.1 敎藏都監 飜刻本

교장도감 번각본은 고려 宣宗 10년(1093)에 敎藏都監에서 간행한 『원각경』을 저본으로 하여 조선 세조 8년(1462) 간경도감에서 번각한 것으로 총 1종이 전래 되고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4> 敎藏都監 飜刻本 「圓覺經大疏釋義抄」 卷13

현재 교장도감본은 남아 있지 않고, 세조 8년(1462)의 번각본만 남아있는데,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전적 중 하나이다. 권수 제는 「圓覺經大疏釋義抄」로 義天의 「신편제종교장총목」 권1 圓覺經部の ‘大鈔二十六卷 或 十三卷 宗密述’ 중 권13에 해당한다.<sup>6)</sup>

### 3.3.1.2 涵虛得通 註釋本 및 飜刻本

함허득통의 주석본은 세조 10년(1464) 姜希顔이 筆寫한 것을 底本으로 하여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것으로 현재 2종이 전래되고 있으며, 이를 번각한 판본으로는 명종 19년(1564) 간행본과 선조 3년(1570) 간행본이 있다.

세조 10년(1464) 함허득통 주석본은 득통이 「원각경」 전체에 걸쳐 오자와 탈자, 경문 가운데 문맥이 맞지 않은 문장을 교감한 것으로 현재 성암고서박물관에 1종, 국립중앙박물관에 1종이 전래되고 있는데 이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의 표지에는 普雨라는 목서가 있다.

명종 19년(1564) 번각본은 신흥사에서 간행한 것으로 총 2종이 남아있다.

이 번각본은 卷末에 ‘天順八年甲申歲朝鮮刊經都監奉敎雕造 嘉善大夫 仁壽府尹臣姜希顔’과 ‘嘉靖四十三年甲子六月日智異山臣興寺開版’이라는 간기가 나타나고 있어 세조 10년(1464)에 간행된 함허득통 주석본을 저본으로 하여 명종 19년(1564) 6월 지리산 臣興寺에서 번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존본 중에서는 보림사에 소장된 보물 제793-12호가 판각이 정교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다(그림 5 참조).

선조 3년(1570) 간행본은 전라도 무등산 안심사에서 禪師雪唄이 교정을 하고, 法雲, 上峯이 판각을 담당한 것으로 현재 1종이 남아있다.

권말에 세조 10년(1464)의 原刊記와 선조 3년(1570)의 重刊記가 기록되어 있어 세조 10년(1464)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함허득통 주석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7)</sup> 총 3권 1책으로 완질본 1종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6) 강순애, “順天 송광사 사천왕상의 복장전적고,”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자료의 종합적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6), 32.

7) 原刊記: 天順八年甲申(1464)歲朝鮮刊經都監奉敎雕造 嘉善大夫 仁壽府尹臣姜希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1종,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3종을 소장하고 있다. 이 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은 총 11권 중 卷上의 一之二와 一之三이 결권이지만 인쇄가 정교하고 卷下 一之一과 卷上 二之三의 卷首에 校正의 도장이 찍혀있으며, 卷上 二之三에 세 차례의 교정을 거치고 찍은 판본임을 알 수 있는 목서지기가 있다. 이 판본은 초인본이며, 삼교까지 거친 교정본인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보물 제970호에 지정되었다.

성종 3년(1472) 간행본은 성종 3년(1472) 6월에 仁粹大妃가 돌아가신 世祖와 睿宗 및 부왕의 趙生淨界 그리고 貞熹大王大妃, 主上, 王妃의 수복을 빌기 위해 경관의 간직처로 나누어 보내서 29종 2,815부라는 방대한 종수와 부수를 인출하게 한 것이다.<sup>8)</sup> 「원각경」 언해본을 중간한 것으로 당시 「법화경」, 「능엄경」 등과 함께 인출되었으며, 판각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현재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결질된 1권 1책이 전해지고 있다.

선조 6년(1573) 용천사본은 세조 11년(1465)에 인출한 「원각경」 언해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것인데, 慧澄과 雲衲의 감독하에 宝崑 등 39명의 각수가 판각에 참여하였고, 870여명의 시주질이 동원되었다. 시주질 중에는 變相施主가 나타나고 있어 변상도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으나 현재 上 二之二 - 三, 下 三之一 - 二의 2권만 남아있어 확인할 수가 없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1종이 전해지고 있는데, 본문 부분에 훼손이 조금 있으나 인쇄상태와 보관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선조 8년(1575) 간행본 역시 세조 11년(1465)본을 저본으로 하여 全羅道 安心寺에서 간행한 것이다. 이 판본은 원래의 판본이 上下內葉黑魚尾인데, 본문의 일부에 上2葉花紋魚尾가 보여 보각판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2종이 전래되고 있는데, 동국대학교 도서관은 완질을 소장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7책이 남아있다.

8)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7), 236.



### 3.3.3 「圓覺經」 乙亥字本

세조 원년(1455) 세조의 글씨를 大字로 하고, 姜希顔의 글씨를 中字 및 小字의 자본으로 하여 동활자를 주조하였는데 이것이 을해자이며, 이 활자로 인출한 것이 「원각경」 을해자본이다(그림 8 참조).



<그림 8> 「圓覺經」 乙亥字本 권2

을해자본으로 인출한 불경은 「원각경」을 비롯하여 「묘법연화경」, 「금강경」, 「능엄경」 등이 있는데 이 불전들은 간경도감 설치 이전인 세조 3년(1457) 9월에 서 세조 7년(1461) 초 사이에 간행된 것이다.<sup>10)</sup> 이 가운데 「원각경」 을해자본은 인출본이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아 회귀본에 해당한다.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零本 4책과 1책 총 2종이 전래되고 있고,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에는 권4에 해당하는 1책을 소장하고 있다.

### 3.3.4 乙亥字 飜刻本

을해자는 이용도가 높은 서적들을 많이 인출하였는데, 을해자만으로는 부족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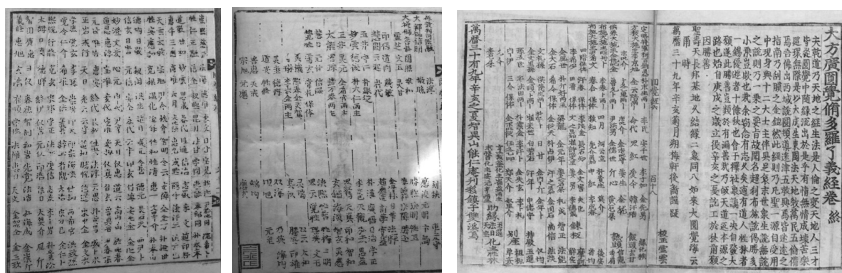
10) 천혜봉, 전게서, 333.

번각본이 다량으로 보급되었다. 『원각경』 또한 조선 중·후기에 을해자본을 중심으로 번각하여 유통되었는데, 이 번각본을 통하여 을해자본의 특성을 살필 수 있다.

### 3.3.4.1 雙溪寺本

쌍계사본은 『원각경』 을해자본을 번각한 것으로 총 15종이 전해진다.

권1, 권5, 권6 末에 있는 刊行秩과 施主秩을 참조하면 광해군 3년(1611) 쌍계사에서 性林의 감독하에 摩訶와 解空이 연관을 하고, 應俊 등 53명의 각수가 판각하여 이후 능인암에 판목을 보존해 둔 것이다(그림 9 참조).



<그림 9> 左: 권1 末, 中: 권5 末, 右: 권6 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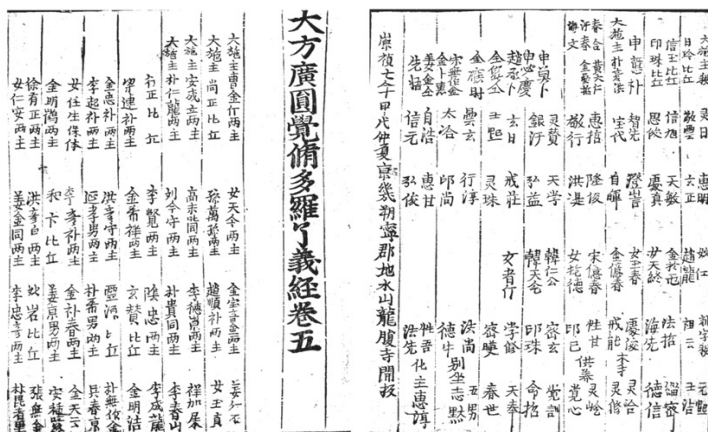
현재 쌍계사에서 총 33종 1,743판(경남유형문화재 제185호)을 소장중인데, 『원각경』의 판목도 그 중 하나로 반파되어 있는 권2의 69-72 부분을 보각하여 넣은 것이 특징이다.<sup>11)</sup>

총 15종이 전해지는데 각각의 판각상태가 일정하지 않다. 그 중 송광사 성보박물관 소장본은 판각상태가 매우 양호한데, 권1 末에 ‘國一 都大禪師覺性 등 시주질 100여명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판본들은 崇熙 등 180여명의 시주질이 나타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11) 한국국학진흥원기초학문육성사업단, 『경남지역의 목판자료』 1 (경북: 한국국학진흥원, 2008), 397.

#### 3.3.4.2 龍腹寺本

용복사본은 인조 12년(1634) 경기도 삭녕군 용복사에서 化主인 惠淳의 주도하에 組云 등 19명의 각수가 율해자본을 번각한 것이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龍腹寺本 권5 末 刊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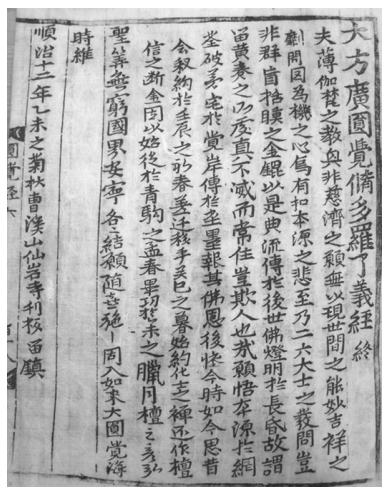
총 3권이 전해지고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 완질을 소장하고 있고,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대하불교 조계종 범어사에 零本 1책을 각각 소장하고 있다.

#### 3.3.4.3 仙岩寺本

선암사본은 효종 6년(1655)에 각수 智演 등 25여명이 참여하여 판각한 것으로 권말에 ‘順治十二年乙未之菊秋曹溪山仙岩寺刊版’이라는 간기가 있어 이를 참조하면 효종 6년(1655)에 조계산 선암사에서 간행사업을 마치고 인출하여 그곳에 유관 시켜 두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11 참조).

현존본으로는 동국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도서관, 선암사 성보박물관, 경북대학교 도서관에 완질이 전해지고 있으며, 이 중 경북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은

표지에 ‘大本山法住寺’라고 목서가 쓰여 있는데, 삼십일본산 중의 하나인 속리산 범주사에 소장되었던 것이 이후 언젠가 경북대로 들어간 것으로 여겨진다. 영남대학교 소장본의 표지에는 ‘無爲山房’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림 11> 仙岩寺 刊行本 卷6 末 刊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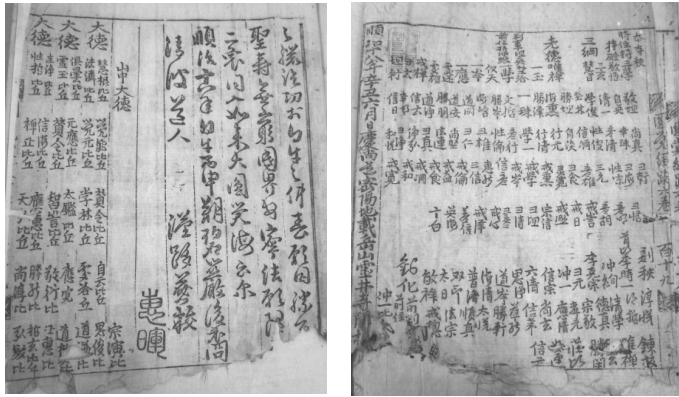
#### 3.3.4.4 靈井寺本

영정사본은 현종 2년(1661)에 化主인 坦英, 冲熙, 道英의 감독 하에 李時一等 29명의 각수가 관여하여 쌍계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것이다.

현존하는 쌍계사본 중 송광사 정보박물관에 소장된 판본의 권1 末과 권5 末에 나타나는 시주절과 각수절이 같다. 다만 권6 끝에는 영정사에서 간행하면서 惠暉가 초서체로 쓴 발문이 들어있다(그림 12 참조).

현재 3종이 남아 있는데, 동국대학교 도서관과 영남대학교 도서관에서 완질본을 소장하고 있다.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은 표지에 八公山에 위치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인 ‘銀海寺’의 목서 기록이 있어 영남대학교가 소장하기 이전에 은해사 소장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圓覺經」 版本의 系統과 書誌의 特徵에 관한 研究



<그림 12> 靈井寺本 卷6 末 施主秩 및 刊記

### 3.3.4.5 普賢寺本

보현사본은 숙종 7년(1681) 普應의 주도로 쌍계사본을 번각한 것으로 쌍계사본과 판식이 동일하나 上象鼻와 下象鼻에 黑口를 표시하였다(그림 13 참조).

총 2종이 남아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는 완질을 소장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도서관에는 1책이 결결 된 6권 5책이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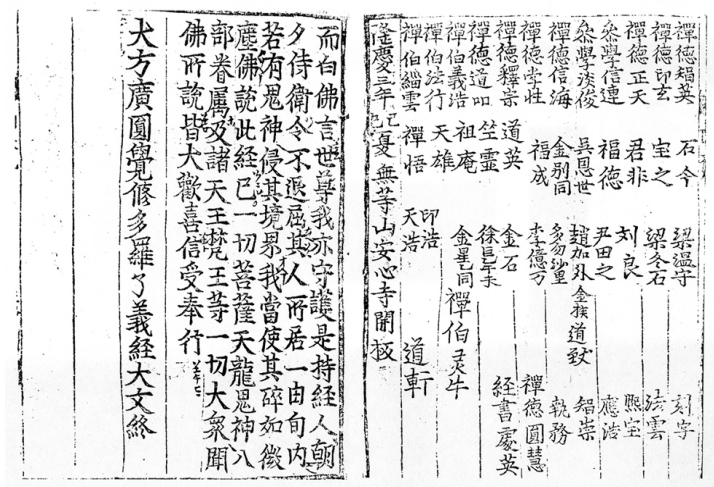
<그림 13> 普賢寺 刊行本 卷5 末 刊記

### 3.3.5 其他 板本

조선시대에 간행된 『원각경』 판본 중 계통을 나눌 수 없는 기타 판본은 선조 2년(1569) 간행본, 선조 21년(1588) 간행본, 철종 12년(1861) 간행본, 고종 19년(1882) 간행본, 고종 20년(1883) 간행본으로 이들 판본의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3.5.1 宣祖 2년(1569) 刊行本

선조 2년(1569) 간행본은 주석서가 아닌 불타다라가 역출한 『원각경』을 간행한 것이다. 권말에 간행결과 ‘隆慶三年己巳夏無等山安心寺開版’이라고 간기가 있어 이를 통하여 선조 2년(1569) 圓慧가 업무를 총괄하고, 處英이 필사하였으며, 法雲, 熙寶, 應浩, 智崇이 刻字하여 무등산 안심사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 참조).



<그림 14> 宣祖 2년(1569) 刊行本の 刊記

이 판본은 기존의 계통과는 다른 판의 형식이긴 하지만 서로 다른 판들이 섞여 있어 후대 간행 판본들 간의 연계관계를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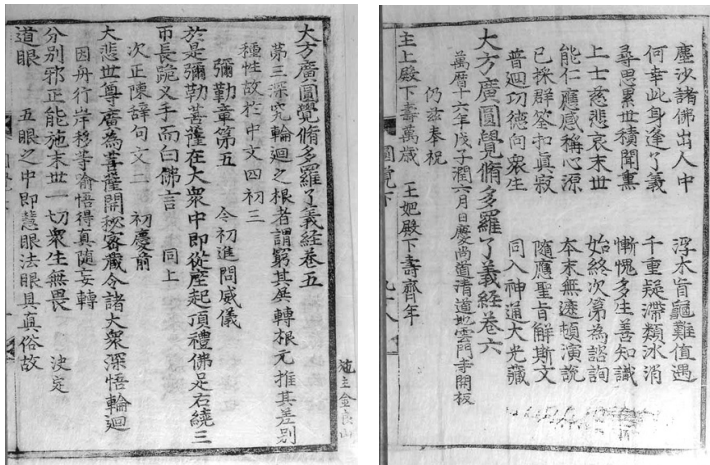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종을 소장하고 있는데, 서두와 서미 난 외 여러 군데에 세필로 참고사항을 기록하였으며, 경문의 각 구절에 이두로 토를 달아놓은 것이 특징이다.

### 3.3.5.2 宣祖 21년(1588) 刊行本

선조 21년(1588) 운문사본은 왕실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釋軒의 주도로 僅連 등의 각수가 판각한 것으로 현재 2종이 전래되고 있다.

이 판본은 권수에 公山本寺에서 義璉이 판각한 위태전과 석가설법도의 변상도가 들어있어 귀중한 판본 중 하나이다(그림 15 참조).

현재 화봉문고와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총 1종씩 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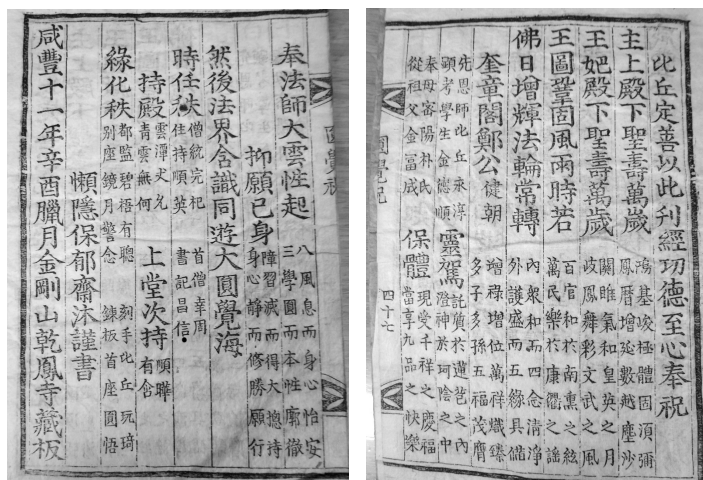


<그림 15> 宣祖 21년(1588) 刊行本의 刊記(화봉문고 소장본)

### 3.3.5.3 哲宗 12년(1861) 刊行本

철종 12년(1861) 간행본은 음력 12월 금강산 건봉사에서 比丘 定善의 주도로 刻手 玩琦가 판각하여 간행한 것이다.

다른 판본들과는 달리 독특한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변상도에 이어서 重刊序와 종밀의 序가 시작되고 있고, 뒤를 이어 「千壽慶」의 淨口業眞言, 開經偈, 開法藏眞言과 종밀의 「원각경」 서문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16 참조).



<그림 16> 哲宗 12년(1861) 刊行本 卷末 刊記

### 3.3.5.4 高宗 19년(1882), 高宗 20년(1883) 刊行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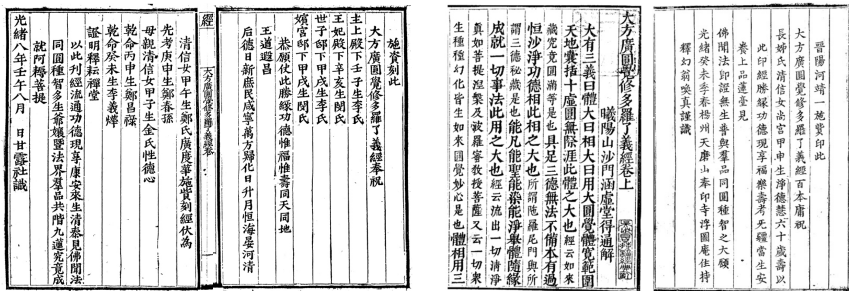
고종조에 간행된 판본은 함허득통의 주석서로 고종 19년(1882) 간행본, 고종 20년(1883) 간행본이 전해지고 있다.

먼저 고종 19년(1882)본을 살펴보면, 불교신도 鄭氏가 돌아가신 아버지 鄭春孫과 가족을 위하여 고종 19년(1882) 8월 甘露社에서 간행한 것이다. 간행장소인

‘甘露社’가 ‘寺’가 아닌 ‘社’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교에서 포교와 수행을 위한 사찰을 건립할 때 ‘寺’ 혹은 ‘社’를 같이 사용한 것으로 이 중 ‘社’는 종교 단체라는 의미가 크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완질본이 전해지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는 落張된 123張의 1책을 소장하고 있다.

고종 20년(1883) 간행본은 楊州 奉印寺 浮圖庵에서 淨德慧의 60세를 기념으로 河靖一이 돈을 내어 100부 간행한 것이다. 고종 19년(1882) 판본의 번각본이지만 卷首에 변상도가 있어 차이가 있다(그림 17 참조).

현재 이 판본은 총 5종이 남아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 3종, 동국대학교 경주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각 1종씩이 소장되어 있다.



<그림 17> 左: 高宗 19년(1882) 卷末, 右: 高宗 20년(1883) 卷末

#### 4. 各 版本들의 書誌의 特徵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간행된 『원각경』 각 계통의 간행자, 자체, 변상도, 경판간행질 분석에서 드러나는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4.1 刊行者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간행된 『원각경』의 간행자를 살펴보면, 국가기관과 寺

刹로 나뉜다. 이에 간행자별로 서지적 특징을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 4.1.1 國家機關

##### 4.1.1.1 敎藏都監

敎藏都監은 선종 3년(1086년)에 고려의 義天에 의해 興王寺에 설립된 기관으로 續藏經의 판각사무를 관장하던 곳이다.

의천은 국내는 물론 宋·遼·日本 등지에서 수집한 불서 4,000여권의 목록인 『新編諸宗教藏總錄』 3권을 선종 7년(1090)에 편찬하였고, 선종 8년(1091)에 홍왕사에서 章疏들을 교감하여 이듬해부터 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숙종 6년(1101) 의천의 죽음으로 숙종 7년(1102)에 마무리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장 전체를 간행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현존하는 교장도감본의 초간본은 거의 없고, 조선 초에 중간한 것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 『원각경』은 『신편제종교장총록』 권1 圓覺經部에 해당하는 것으로 송광사 사천왕상을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 4.1.1.2 大藏都監

大藏都監은 고려 고종 18년(1231) 몽골의 침입으로 인하여 6,000여권의 初雕大藏經이 소실되자 고려대장경판을 간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곳이다.

대장경의 판각은 고종 24년(1237)부터 동왕 35년(1248) 까지는 정장이 새겨지고, 그 뒤 동왕 38년(1251)까지의 3년간과 이어 한동안은 교종류, 승전류, 문집 등이 새겨졌다. 판각이 끝난 후 강화도 선원사에 보관되다가 조선 태조 7년(1398)에 지천사를 거쳐 해인사로 옮겨져 대장경판전에 보관되고 있다.<sup>12)</sup>

12) 강순애, “고려 팔만대장경의 판각, 봉안 및 판가구성에 관한 연구,” 『대장경판 DB구축 및 3D영상사업 연구논문집』 (2010), 14-15.

경판의 총 수는 1,514종(경) 81,350판인데 그 중 「원각경」은 총 1권 20판 40면으로 현재 법보전 39판가 10층 17-36번에 수장되고 있다.

#### 4.1.1.3 刊經都監

刊經都監은 세조 7년(1461)에 大藏都監과 敎藏都監의 취지를 본떠 설립한 임시 국가 기관으로 불경의 국역과 간행을 관장하던 곳이다.

세조 8년(1462) 「능엄경」의 간행을 시작으로 성종 2년(1471)에 폐지되기까지 한문 경전 33종, 언해본 9종을 간행하였는데, 당대 명필가인 姜希顔, 鄭蘭宗 등과 信眉, 守眉 등의 승려를 비롯하여 黃守身, 金守溫 등의 문신을 총 동원하여 일정한 체제와 양식으로 판서하여 정각한 것이 특징이다.<sup>13)</sup>

#### 4.1.2 寺刹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간행된 「원각경」의 간기에 나타나는 13곳의 사찰을 지역과 종파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4.1.2.1 지역

「원각경」을 간행한 사찰을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크게 전라도 4곳, 경상도 4곳, 경기도 3곳, 평안북도 1곳, 강원도 1곳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각경」을 간행한 전라도 지역 사찰을 살펴보면, 無等山 安心寺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은 찾을 수 없으나<sup>14)</sup> 선조 2년(1569)에 인출된 「眞言集」, 선조

13) 박정숙, “세조대 간경도감의 설치와 불전 간행,” 『부대사학』 20(1995), 44-53.

14) 선조 2년(1569) 안심사에서 간행된 「地裝菩薩本願經」의 간기를 찾아보면 ‘隆慶參年己巳秋全羅道同福地無等山安心寺開版’이라고 나타나고 있어 간행장소인 無等山 安心寺는 全羅道 同福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同福은 백제시대의 豆夫支縣이라 불리다가 그 후 몇 차례의 변천을 거쳐 현재는 화순군 동복면이 되었다.

3년(1570)에 간행한 『玉樞寶經』 등이 남아 있다. 高山 安心寺는 전라북도 완주군의 大屯山에 위치하고 있고, 龍泉寺는 전남 담양군 추월산에 소재하고 있다. 仙岩寺는 전남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사찰이다.

둘째, 경상도 지역의 사찰 중 雲門寺는 경북 청도군 虎踞山에 있는 사찰로 총 17種 318板의 목판을 소장하고 있다.<sup>15)</sup> 臣興寺는 하동 화개면 범왕리에 위치하고 있던 사찰이나 현재 폐사된 상태이다. 雙溪寺는 경남 하동 지리산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로 불교관련 서적을 활발히 간행하였다. 靈井寺는 경상남도 밀양의 載岳山<sup>16)</sup>에 있는 사찰이며, 당시 판각한 목판 총 26종 203판을 소장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 지역의 사찰을 살펴보면, 龍腹寺는 朔寧의 水山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이고, 甘露社는 양주의 삼각산에 소재하고 있다. 奉印寺는 남양주 천마산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로 한때 봉선사의 말사였으며,<sup>17)</sup> 철종 11년(1860) 『修禪結社文』을 시작으로 고종 20년(1883) 『원각경』, 고종 26년(1889) 『禪門拈頌集說話』 등 총 4종을 간행하였다.

넷째, 평안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찰은 평안북도 영변군 묘향산에 있는 보현사 1곳으로 고려 광종 19년(968)에 探密, 宏廓 대사가 창건한 곳이다.

다섯째, 강원도 지역의 사찰은 고성군에 위치한 봉선사로 철종 11년(1861) 『佛說無量壽經』, 철종 12년(1862) 『佛說大目連經』 등을 간행하였다.

#### 4.1.2.2 종파

『원각경』을 간행한 사찰을 종파로 나누어 보면 조계종 사찰 7곳, 종파를 알 수 없는 사찰이 6곳이다.

첫째, 조계종 계열의 사찰 중 고산 안심사는 조계종의 제17교구 금산사의 말사

15) 남권희, “경상도 지역에서 간행된 불교 서적에 관한 연구,” 『한국서지학논집』(1999), 414.

16) 현종 2년(1661) 영정사본의 간기를 살펴보면 慶尙道 密陽 載岳山에 있는 靈井寺에서 개판하였다고 하는데, 載岳山은 載藥山을 뜻한다. 당시 간행된 판본에는 載岳山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16세기 후반의 고지도인 東覽圖와 김정호의 大東輿地圖 등을 보면 載岳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7) 권상노, 『한국사찰전서』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549.

이고, 용천사는 제18교구 백양사의 말사이다. 운문사는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의 말사이고, 쌍계사는 제13교구의 본사이며, 영정사는 제15교구의 본사인 통도사의 말사이다. 건봉사는 제25교구인 봉선사가 관리하는 70여개의 말사에 속하는 사찰이며, 봉인사는 제3교구인 신흥사의 말사이다.

둘째, 종파를 알 수 없는 사찰은 총 6곳으로 無等山 安心寺, 臣興寺, 龍腹寺, 甘露社이다. 보현사는 일제 강점기의 삼십일본산이라는 제도에 속하였던 사찰이고, 선암사는 백제성왕 5년(527)에 阿度和尙이 창건한 사찰로 「원각경」을 간행할 당시의 종파는 알 수 없으나 현재는 태고종 소속이다.

「원각경」을 간행한 사찰 13곳을 대상으로 지역, 시기, 종파, 종수를 도표화 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寺刹別 「圓覺經」 刊行 現況

| 사찰  | 지역          | 시기           | 종파  | 종수 |
|-----|-------------|--------------|-----|----|
| 신흥사 | 慶尙道 河東 智異山  | 명종 19년(1564) | 미상  | 2  |
| 안심사 | 全羅道 同福 無等山  | 선조 2년(1569)  | 미상  | 1  |
|     |             | 선조 3년(1570)  |     | 1  |
| 용천사 | 全羅道 潭陽 秋月山  | 선조 6년(1573)  | 조계종 | 1  |
| 안심사 | 全羅道 高山 大茆山  | 선조 8년(1575)  | 조계종 | 2  |
| 운문사 | 慶尙道 靑都 虎踞山  | 선조 21년(1588) | 조계종 | 2  |
| 쌍계사 | 慶尙道 河東 智異山  | 광해군 3년(1611) | 조계종 | 15 |
| 용복사 | 京畿道 朔寧 水淸山  | 인조 12년(1634) | 미상  | 4  |
| 선암사 | 全羅道 順天 曹溪山  | 효종 6년(1655)  | 미상  | 11 |
| 영정사 | 慶尙道 密陽 載岳山  | 현종 2년(1661)  | 조계종 | 3  |
| 보현사 | 平安北道 寧邊 妙香山 | 숙종 7년(1681)  | 미상  | 2  |
| 건봉사 | 江原道 高城      | 철종 12년(1861) | 조계종 | 5  |
| 감로사 | 京畿道 楊平 三角山  | 고종 19년(1882) | 미상  | 3  |
| 봉인사 | 京畿道 楊洲 天磨山  | 고종 20년(1883) | 조계종 | 5  |
| 총 계 |             |              |     | 57 |

위의 <표 2>를 참조하면, 「원각경」을 간행한 사찰은 종파별로 구분하면 조계종 사찰 7곳, 종파를 알 수 없는 사찰이 6곳이고,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전라도

4곳, 경상도 4곳, 경기도 3곳, 평안북도 1곳, 강원도 1곳이다. 주로 경기도 이남 지역에서 간행되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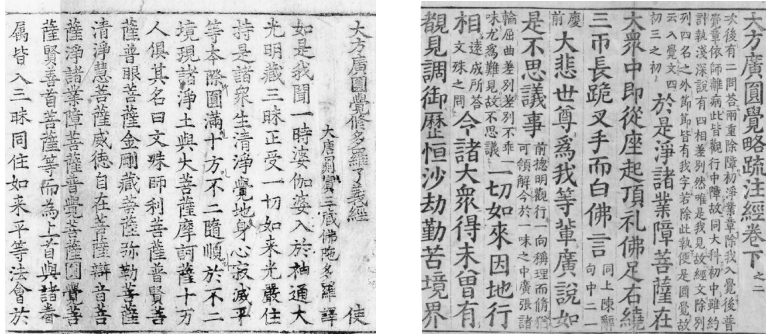
## 4.2 字體

『원각경』 판본에서 두드러지는 字體는 고려시대의 송판계통의 자체와 조선시대의 간경도감본의 자체, 을유자본의 자체, 을해자본 및 번각본의 자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4.2.1 宋板系統本の 字體

송판의 刻印은 北宋 太宗 端拱 元年(998)에 國子監에서 所刻한 『羣經正義』에서 시작되었다. 송판의 字體를 살펴보면 ‘橫經直重’의 특징을 가진 것을 宋字라 하였으며, 모든 필법이 氣味古樸한 해서체인 것이 특징이다.<sup>18)</sup>

송판계통은 송에서 유행한 전형적인 구양순체의 특징이 여실히 나타나는데, 고려시대에 간행된 『원각경』 판본의 字體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송판본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그림 18 참조).



<그림 18> 左: 대장도감본, 右: 송판번각본

18) 이성애, “三朝木版本考,” 『韓國文化研究院 論叢』 31(1978), 82.

## 4.2.2 刊經都監本의 字體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에는 송설체의 영향을 받은 글씨체가 유행하였는데, 특히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국역본은 姜希顔, 鄭蘭宗과 같은 당대의 명필가를 총 동원하여 송설체계의 원필로 대중소자를 늠름하고 육중하게 써서 새겨냈으며, 그 중 특히 大字가 힘있게 쓴 굵은 필서체로 자못 중후하고 아름답다. 한글은 강직하게 그은 線畫으로 結構된 印書體이며, 각 紙張을 보면 굵고 가는 원필의 한자와 가는 인서체의 한글이 조화롭게 인쇄된 것이 간경도감 국역판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sup>19)</sup>

간경도감본 중 세조 10년(1464) 득통의 주석본 및 번각본과 세조 11년(1465)의 언해본 및 번각본의 字體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림 19>와 같다.

|   | 세조 10년<br>득통주석본 | 명종 19년<br>번각본 | 선조 3년<br>번각본 |   | 세조 11년<br>언해본 | 성종 3년<br>중간본 | 선조 8년<br>번각본 |
|---|-----------------|---------------|--------------|---|---------------|--------------|--------------|
| 切 |                 |               |              | 如 |               |              |              |
| 行 |                 |               |              | 聖 |               |              |              |
| 不 |                 |               |              | 明 |               |              |              |

<그림 19> 刊經都監 函虛得通 註釋本, 諺解本 및 翻刻本의 字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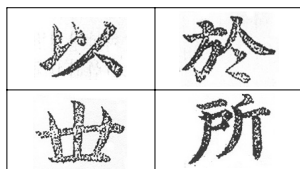
위의 <그림 19>를 참조하면, 함허득통 주석본은 강희안의 글씨 특징이 잘 나타나 있고, 언해본은 함허득통 주석본에 비해 글씨체가 더 해정하다. 각각의 번각본들은 원본의 글씨에 비해 후대로 갈수록 글자 크기가 줄어들어 있고, 글자의 획이 굵거나 가늘어지는 양상을 보여 정교도에서 훨씬 떨어진다.

19) 천혜봉, 전계서, 210.

#### 4.2.3 乙酉字本の 字體

세조 11년(1465)에 간행한 『원각경』을유 한글자본은 鄭蘭宗의 글씨를 자본으로 하여 큰자, 중간자 및 작은자를 주조한 동활자로 인출한 판본이다.

을해자와 비슷한 송설체이지만 을해자보다 작고 고르지가 않다. ‘以’자는 시작이 뾰족한 특징이 있고, ‘於’자는 才邊이 아닌 方邊에다가 訓辭大字 보다 굵은 획이며, ‘世’자는 ‘士’자의 左右에 날카로운 창칼을 세운 듯한 모양이고, ‘所’자는 다른 대형 활자와는 달리 戶邊으로 되어있다(그림 20 참조).<sup>20)</sup>



<그림 20> 『圓覺經』 乙酉 한글자본의 字體

위의 <그림 20>과 같이 을유자본의 自體는 날카로워 활자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유신들의 혹평이 잇달았다. 그로 인해 갑진자를 새로 주조할 때 녹여져서 전해지는 판본이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글씨체를 바탕으로 주성한 마지막의 독자적인 금속활자인 점에서 의의가 크다.<sup>21)</sup>

#### 4.2.4 乙亥字本 및 翻刻本の 字體

을해자는 대·중·소의 세 종류로 大字는 세조의 글씨를 바탕으로 주조하였고, 中字와 小字는 강희안의 글씨를 자본으로 하였다. 중자는 강희안 글씨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으나 소자는 주로 쌍주를 달 때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폭이 좁고 강희안의 글씨체의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sup>22)</sup>

20) 윤병태, “世祖朝 大型活字考,” 『규장각』 8(1984), 98.

21) 천혜봉,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2003), 92.

을해자는 축체인 송설체보다는 진체체인 왕우군체에 가까운 편이며, 진체의 해서체로 폭이 길이보다 좀 넓은 듯 하나 자획이 굵고 필치가 웅건하여 축체와 가까워 진축검체로 볼 수 있다.<sup>22)</sup>

을해자본 및 번각본에 나타나는 자체를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을 참조하면, 『원각경』을해자의 원본에 나타나는 글씨체는 강희안의 평평하고 폭이 넓은 둥근 필의가 돋보이며, 번각본의 글씨체는 을해자본에 비해서 획이 굵어지고, 정교도가 떨어지며, 거칠고 불균형한 것을 볼 수 있다. 을해자본을 번각한 쌍계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영정사본과 보현사본은 획이 더욱 거칠고 굵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 구 분                  | 解 | 修 | 證 | 起 | 義 |
|----------------------|---|---|---|---|---|
| 「원각경」<br>을해자본        |   |   |   |   |   |
| 인조 12년(1634)<br>용복사본 |   |   |   |   |   |
| 효종 6년(1655)<br>선암사본  |   |   |   |   |   |
| 광해군 3년(1611)<br>쌍계사본 |   |   |   |   |   |
| 현종 2년(1661)<br>영정사본  |   |   |   |   |   |
| 숙종 7년(1681)<br>보현사본  |   |   |   |   |   |

<그림 21> 「원각경」 乙亥字本 및 翻刻本の 字體

#### 4.3 變相圖

『원각경』의 전체 판본에서 변상도가 수록되어 있는 판본은 선조 21년(1588)

22) 천혜봉, 전게서, 92.

23) 김치우, “乙亥子本과 그 傍系字本考,”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7(1997), 30.

운문사본, 철종 12년(1861) 봉인사본, 고종 20년(1883) 건봉사본의 3종인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3.1 宣祖 21년(1588) 雲門寺本 變相圖

선조 21년(1588) 운문사본의 변상도는 변상의 둘레 외곽에 0.5cm 정도의 공간을 두어 字母雙線을 그어 안쪽을 忍冬紋으로 장식 하였다. 판심제는 ‘원각변상’이고, 난각 좌우에 ‘公山本寺智雲筆’, ‘公山本寺義璉力’ 이라 판각되어 있어 智雲이 밑그림을 그리고 義璉이 새겼음을 알 수 있다.

첫장의 韋馱天 오른쪽 난각 밖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이라는 제목에 이어서 ‘變相’이라고 판각되어 있다. 위태천은 15세기 초부터 17세기 중기까지 나타나는 일반적인 유형으로 세종 25년(1443) 선암사본 『묘법연화경』을 비롯한 많은 판본에서 볼 수 있다.<sup>24)</sup> 석가설법도는 부처와 12대 보살을 비롯한 팔만금강의 모습을 형상화 하고 있다(그림 22 참조).



<그림 22> 雲門寺本 變相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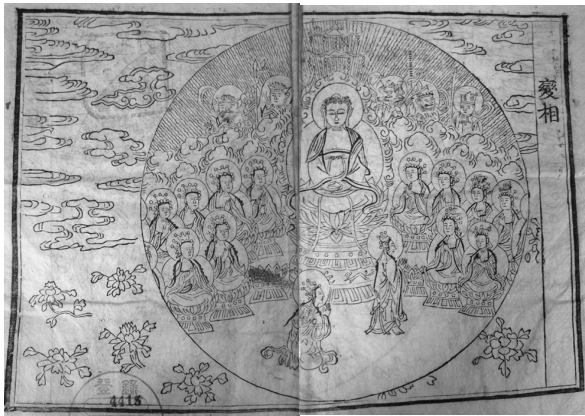
#### 4.3.2 哲宗 12년(1861) 乾鳳寺本 變相圖

철종 12년(1861) 건봉사본의 변상도는 총 2면에 비로자나불의 설법도가 나타

24) 김보형, “위태천 도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1), 99-100.

나고 있다.

이 도상은 장방형의 全郭을 새기고 그 안에 원형의 畫面을 마련한 후 화면 외곽에 구름과 꽃이 장식되어 있다. 중심에는 대좌 위에서 結跏趺坐하고 禪定印을 취하고 있는 本尊이 자리하고 있고, 본존 앞에는 한 보살이 설법을 청하고 있으며, 또 다른 보살이 오른쪽을 향여 合掌한 채 서 있다. 보살들은 앞줄에 2위, 뒷줄에 4위씩 앉아 있는데 본존에 가까워질수록 상승하는 구도로 배치하여 설법을 청하는 보살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그림 23 참조).<sup>25)</sup>



<그림 23> 乾鳳寺本 變相圖

#### 4.3.3 高宗 20년(1883) 奉印寺本 變相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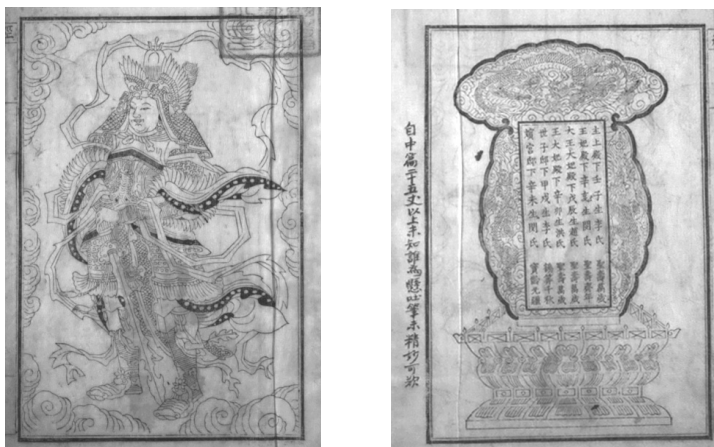
고종 20년(1883) 奉印寺本은 위패와 위태천이 총 2면에 등장하고 있다.

원래 위패는 뒤에 흙을 파서 菩薩, 羅漢, 神將을 봉안하고, 바깥쪽에 왕실의 장수 및 불교의 번성을 기원하는 내용을 기입하는데,<sup>26)</sup> 봉인사본의 위패 도상에 도 왕실의 장수를 기원하는 발문이 판각되어 있다.

25) 박도화, “朝鮮 前半期 佛經版畫의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8), 154.

26) 김보형, 전게서, 92.

봉인사본의 위태천 도상은 철종 3년(1853) 內院庵에서 간행한 『佛說阿彌陀經要解』의 제2매판의 도상을 번각한 것으로 위태천의 방향이 반대이고, 火焰 부분이 생략되었다. 이와 동일한 도상은 동년에 간행된 『금강경』에서도 볼 수 있다. 19세기에는 이렇게 경전의 종류에 관계없이 위태천만으로 변상을 대신한 사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며, 이후 간행된 경판의 위태천은 이 도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그림 24 참조).<sup>27)</sup>



<그림 24> 奉印寺本 變相圖

#### 4.4 經板刊行秩

사찰에서 간행한 책에는 刊行事項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경판간행질이 있는데, 각각의 소임이 구체적으로 세분되어 기재되어 있다.

大化主는 불사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化士, 幹化, 幹善, 都監, 設辦 등으로 표시되고 있고,<sup>28)</sup> 刻手는 판각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鍊板은 목재를 마련하는 사람을

27) 박도화, 전게서, 153-154.

28) 한국불교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불교대사전』 (서울: 명문당, 1995), 234.

「圓覺經」版本의 系統과 書誌의 特徵에 관한 研究

지칭하며, 大木, 木手 등으로 불린다.<sup>29)</sup> 書寫는 관각용 淨書本을 베껴쓰는 사람을 말하고, 分문의 오탈을 바로 잡아 책의 교정에 관여하는 일을 校正이라고 한다. 시주질에는 供養主, 別座, 持殿, 寮主, 三綱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供養主는 飯頭, 熟頭로 구분되는데 반두는 절에서 대중이 먹을 齋米를 공양하는 이를 뜻하고, 숙두는 반찬을 만드는 이를 뜻한다. 別座는 典座라고도 하며, 부처님이나 스님에게 공양할 반찬과 음식 일체를 맡는 역이다.<sup>30)</sup> 持殿은 개관불사가 잘 진행 되도록 부처님전에 기도하는 사람이고, 寮主는 대중 스님들을 위하여 옷과鉢盂를 간수하는 직책을 뜻한다. 「원각경」 간행에 관여한 경판간행질을 분석하여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經板刊行秩

| 寺刹名 및<br>刊行年度           | 位置             | 大化主                           | 刻手 및 鍊板                                                                                                                                                                                             | 書寫<br>校正                                       | 施主秩                                                                                                                                      |
|-------------------------|----------------|-------------------------------|-----------------------------------------------------------------------------------------------------------------------------------------------------------------------------------------------------|------------------------------------------------|------------------------------------------------------------------------------------------------------------------------------------------|
| 신흥사<br>명종 19년<br>(1564) | 卷下<br>末        | 幹化道人: 明鑑<br>執務: 智應, 敬連,<br>戒海 | 刻手: 粹然, 法云, 戒海, 道軒,<br>學靈                                                                                                                                                                           |                                                | 大功德主: 茶氏, 徐氏, 申<br>鵬, 申容海, 申孫,<br>申明進, 吳守成<br>施主秩: 林秀堰 등 30여 명                                                                           |
| 안심사<br>선조 2년<br>(1569)  | 卷1 末           | 性林<br>執務: 禪德圓慧                | 刻字: 法雲, 熙寶, 應浩, 智崇                                                                                                                                                                                  | 서사:<br>經書處英<br>교정: 靈雲                          | 施主秩: 禪德智英 등<br>35여 명                                                                                                                     |
| 안심사<br>선조 3년<br>(1570)  | 卷1 末           |                               | 刻手秩: 法雲, 上峯<br>鍊板: 修岩, 信海, 祖惠                                                                                                                                                                       | 교정:<br>敎宗大禪<br>師雪峯                             | 施主: 安和進 등 90여 명<br>權化: 印珠, 惠澄<br>別座: 道熙, 飯頭: 太云<br>熟頭: 志熙,                                                                               |
| 용천사<br>선조 6년<br>(1573)  | 下<br>三之<br>二 末 | 幹善: 慧澄, 雲衲                    | 刻手秩: 道彦, 處瓊, 義敬, 性坦,<br>法雲, 義軒, 祖仁, 德裕, 灵守,<br>祖能, 萬熙, 上峯, 玉軒, 禪修,<br>一正, 義元, 道湜, 太峻, 戒根,<br>敬熙, 智揖, 戒祖, 印全, 正云,<br>守行, 云水, 坦衍, 天靜, 印眞,<br>熙寶, 信仁, 靈玉, 應眞, 惠英,<br>祖雄, 奇玉, 元印<br>鍊板秩: 靈清, 上元, 敬暉, 信明 | 교정:<br>寶峯, 源徹,<br>戒峯, 智仁,<br>性安, 淨修,<br>湛源, 學眞 | 施主秩: 朴春亨 외 870여 명<br>緣化秩: 玉靈, 智安, 圓覺,<br>道熙, 千悟, 祖惠,<br>戒眞, 成弼桂<br>飯頭: 惠通, 云玉, 印休<br>熟頭: 天鏡, 智希, 戒仁,<br>信云, 信正<br>助後人: 志談, 于云, 朴山,<br>於屯 |

29) 천혜봉, 1990. 전게서, 206.

30) 강순애, “조선조 활자본계의 묘법연화경 판본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보』 10 (1999), 21-22.

| 寺刹名 및<br>刊行年度           | 位置            | 大化主                     | 刻手 및 鍊板                                                                                                                                                                                                                                                                           | 書寫<br>校正    | 施主秩                                                                                                                                    |
|-------------------------|---------------|-------------------------|-----------------------------------------------------------------------------------------------------------------------------------------------------------------------------------------------------------------------------------------------------------------------------------|-------------|----------------------------------------------------------------------------------------------------------------------------------------|
| 운문사<br>선조 21년<br>(1588) | 卷4, 6<br>末    | 幹善山人 : 釋軒<br>執勞: 正浩, 性淡 | 刻手秩: 僅連, 印軒, 宗元, 正應,<br>天俊, 敬玄<br>鍊板: 智熙                                                                                                                                                                                                                                          | 서사:<br>山人道林 | 施主: 惠雨比丘 등 280여 명<br>勤功別座: 惠岑<br>供養主: 熙贊<br>寮主: 海當, 勸侍: 信洽                                                                             |
| 쌍계사<br>광해군 3년<br>(1611) | 卷1, 5,<br>6 末 | 化主: 性林                  | 刻秩: 應俊, 勝熙, 姜?詳, 金得林,<br>趙應道, 朴謙, 李彥己, 羅紅<br>鳥, 玄鑑, 淡熙, 羅元, 靈瑞,<br>眞僅, 双海, 坦旭, 端均, 應<br>玄, 元明, 法明, 法隣, 日華,<br>訂學, 廣悟, 天觀, 天真, 海<br>淡, 性哲, 覺性, 車?守, 卞詢,<br>性玉, 勝選, 法暉, 寬益, 日<br>浩, 弘?, 印和, 智玄, ?梅, 瑞<br>英, 双云, 勝安, 乃英, 元圭,<br>學正, 思益, 智和, 靈應, 靈<br>明, 文玉, 太和, 印雄, 海均<br>鍊板: 摩訶, 鮮空 | 서사: 靈雲      | 施主: 法融 등 230여명<br>持殿: 玉暹, 僅均<br>別座: 組?., 草彥<br>飯頭: 玄甘<br>熟頭: 信觀, 秀眉, 後安,<br>省均<br>助緣: 玉暹, 法日, 天宝                                       |
| 용복사<br>인조 12년<br>(1634) | 卷5 末          | 化主: 惠淳                  | 刻字秩: 組云, 法哲, 海先, 處俊,<br>戒能, 性甘, 印巳, 密玄,<br>印珠, 學修, 索嘆(?),<br>法尙, 德牛, 性吾, 法先,<br>元熙, 靈浩, 緇密, 德信<br>木手: 靈洽, 靈修                                                                                                                                                                      |             | 施主秩: 曹金釘 등<br>110여명<br>別座: 志默<br>供養: 靈屹, 覺心, 覺訓,<br>命哲, 天奉, 春世,<br>五男                                                                  |
| 선암사<br>효종 6년<br>(1655)  | 卷5, 6<br>末    |                         | 刻秩: ?正, 智演, 學淳, 印澄, 玉明,<br>玉玄, 得云, 一鑒, 戒雄,<br>海玉, 明侃, 處尙, 尙益,<br>双凜, 玉淨, 學祐, 信贊,<br>性凜, 淨玉, 靈仁, 敏澄,<br>碩行, 天悟, 宝雄, 熙忍<br>木手秩: ?律, ?莊                                                                                                                                              |             | 施主: 杻氏 등 60여명<br>功德主: ?暹<br>緣化秩: 神式比丘,<br>者傳比丘,<br>普海比丘,<br>戒海單身,<br>助揚靈順生,<br>引思玲印比丘<br>鐵物施: 宋命吉, 崔善生,<br>崔今世<br>食鹽施: 善玉,<br>校子施: 李波圓 |
| 영정사<br>현종 2년<br>(1661)  | 卷5, 6<br>末    | 坦英, 冲熙, 道英              | 刻秩: 李時一, 冲絢, 李克宗, 靈元,<br>冲一, 信宗, 六清, 思淨, 道<br>岑, 海清, 普濟, 双印, 太日,<br>敏祥, 淳悅, 得哲, 清學, 德<br>眞, 宗敬, 孝元, 應清, 尙玄,<br>信茅, 草能, 勝斬, 太悅, 順<br>眞, 法宗, 戒揚<br>鍊板: 唯禪, ?玄, 勝閑, 莊?, ??, 信?                                                                                                       |             | 施主秩: 僅天 등 30여명<br>持殿: 敬悟<br>三綱: 三玄, 慧日                                                                                                 |

「圓覺經」 버전의 系統과 書誌의 特徵에 관한 研究

| 寺刹名 및<br>刊行年度          | 位置   | 大化主        | 刻手 및 鍊板          | 書寫<br>校正    | 施主秩                                                     |
|------------------------|------|------------|------------------|-------------|---------------------------------------------------------|
| 보현사<br>숙종 7년<br>(1681) | 卷5 末 | 都大化主: 智?   |                  |             | 施主秩: 都大施主 金有之<br>등 70여 명                                |
| 건봉사<br>철종<br>12년(1861) | 卷1 末 | 都監: 碧梧, 有聰 | 刻手: 玩琦<br>鍊板: 圓悟 | 서사:<br>懶隱保郁 | 施主秩: 鄭健朝 등 20여 명<br>別座: 鏡月, 警念<br>持殿: 雲潭, 丈九, 靑雲,<br>無何 |

위의 <표 3>을 종합하면, 경관간행질은 대부분 卷末에 나타난다.

大化主의 경우 신흥사본에는 幹化道人, 용천사본에는 幹善, 운문사본은 幹善山人, 보현사본에서는 都大化主가 나타난다. 쌍계사본과 용복사본은 化主, 건봉사본에는 都監이라고 나타나고 있다. 大化主와 더불어 업무를 총괄하는 執務는 신흥사본, 선조 2년(1569) 안심사본, 운문사본에 나타나고 있다.

刻手는 刻手, 刻字, 刻秩 등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신흥사본과 건봉사본은 刻手, 선조 2년(1569) 안심사본에는 刻字, 용천사본과 운문사본은 刻手秩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쌍계사본과 영정사본에는 刻秩, 용복사본에는 刻字秩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각수에 대한 명칭이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선암사본의 각수 중 覺性, 性玉, 勝熙, 日浩, 眞義, 玄鑑 등은 선조 37년(1604) 능인암에서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와 『妙法蓮華經』 등을 판각한 각수이다.<sup>31)</sup>

鍊板은 선조 3년(1570) 안심사본, 운문사본, 쌍계사본, 영정사본, 건봉사본에 나타나고 있고, 용천사본에는 연판질, 용복사본은 목수, 선암사본에는 木手秩이라고 나타나고 있다.

書寫의 경우 선조 2년(1569) 안심사본은 經書處英, 운문사본은 山人道林, 쌍계사본은 靈雲, 건봉사본에서는 懶隱保郁이 담당하였다. 校正은 선조 2년(1569) 안심사본, 선조 3년(1570) 안심사본, 용천사본에 나타나고 있다.

시주질은 적게는 20여 명에서 많게는 870여 명이 넘는 인원이 관여하였다. 선조 3년(1570) 안심사본과 쌍계사본에서는 別座, 飯頭, 熟頭가 나타나는 반면

31) 김상호, “조선조 사찰판 각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42-47

용천사본에는 반두와 숙두만이 나타나고 있다. 운문사본과 용복사본에서는 공양과 별좌가 기록되어 있고, 건봉사본에서는 별좌만이 기록되어 있다.

持殿은 쌍계사본, 영정사본, 건봉사본에 나타나고 있는데, 쌍계사본에서는 玉暹, 僅均이 담당하였고, 영정사본에서는 敬悟, 건봉사본에서는 雲潭, 丈允, 靑雲, 無何이 담당하고 있다. 寮主가 나타나는 판본은 운문사본이고, 三綱은 영정사본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 5. 結 論

『원각경』 판본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에 관한 분석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전국의 도서관 및 박물관, 개인 소장 자료 총 141종 중 刊記가 분명한 89종을 계통별로 분석한 결과 고려시대는 대장도감본, 우왕 6년(1380) 간행본, 송판번각본으로 구분되고, 조선시대는 간경도감본, 을유 한글자본, 을해자본, 을해자번각본, 기타 판본으로 나누어진다.

2) 고려시대에 간행된 『원각경』의 특징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존하는 판본 중 가장 시기가 빠른 것은 고종 28년(1241)에 대장도감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현재 이의 후쇄본 2종이 남아있다.

둘째, 우왕 6년(1380)본은 송나라 효종황제의 註와 이색의 발문이 실려 있는 희귀한 자료로 가치가 높다.

셋째, 송판번각본은 14세기 송판본계를 번각한 것으로 여겨지며, 14세기 중엽 이전의 구결토와 15세기의 복합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조선시대에 간행된 『원각경』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경도감판본은 名僧과 巨儒를 초빙하여 국역·교감한 후 당대의 명필가를 동원하여 일정한 체제와 형식으로 판서본을 마련하여 정각한 것이다.

세조 8년(1462) 간행된 교장도감 번각본은 고려 宣宗 10년(1093)에 敎藏都監

에서 간행한 것을 번각한 것으로 교장도감본의 특징을 알 수 있다.

함허득통 주석본은 득통이 「원각경」을 교감하여 저술한 것을 강희안이 필사하여 판각한 것으로 이의 번각본은 명종 19년(1564) 신흥사 간행본과 선조 3년(1570) 안심사 간행본이 있는데, 그 중 신흥사본은 번각이지만 상태가 좋아 보물 제793-12호로 지정되었다.

「원각경」 언해본은 종밀의 「원각경대소초」에 세조가 직접 구결을 달고, 도제조 황수신 등이 간행에 참여한 것이다.

둘째, 을유 한글자본은 정난종의 글씨를 자본으로 주조한 을유자로 인출한 판본으로 회귀본에 속한다. 상권 5권, 하권 6권 총 11권으로 여러 기관에 분산·소장되어 전체를 합치면 한 질을 이루고 있다.

셋째, 을해자본은 세조와 강희안의 글씨를 자본으로 하여 주조한 을해자로 인출한 판본인데, 현전하는 완질의 초간본이 없어 회귀본에 속한다.

넷째, 을해자본의 번각본은 쌍계사본, 용복사본, 선암사본이 있고, 쌍계사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것으로는 영정사본과 보현사본이 있다.

쌍계사본은 총 15종이 전해지는데 그 중 송광사성보박물관 소장본은 권1 말에 崇熙 등 180여 명의 시주질이 아닌 ‘國一 都大禪師覺性’의 시주질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용복사본은 인조 12년(1634)에 화주인 惠淳의 주도로 간행된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본의 완질본을 비롯하여 3종이 전해진다.

효종 6년(1655) 선암사본은 각수 智演 등 25명이 판각한 것으로 총 11종이 전해진다. 이 중 경북대학교도서관 소장본은 표본이 될 만한 책이다.

영정사본은 현종 2년(1661)에 화주인 坦英의 감독 아래 인출한 것으로 쌍계사본 중 송광사성보박물관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한 것으로 보이며, 판본간의 선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숙종 7년(1681) 보현사본은 화주 普應의 주도로 간행한 것으로 쌍계사본과 판식이 동일하나 上象鼻와 下象鼻에 黑口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계통을 나눌 수 없는 기타 판본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선조 2년(1569) 간행본은 무등산 안심사에서 인출한 것으로 계통을 알 수 없는 판들이 섞여 있어 후대 간행 판본들과의 연계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철종 12년(1861) 건봉사본은 比丘 定善에 의해 간행된 것으로 권수에 석가설법도 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종 19년(1882) 감로사본과 고종 20년(1883) 봉인사본은 같은 계통의 판본인데, 봉인사본에서만 위패와 위태천의 도상이 나타나고 있다.

4) 『원각경』의 판본에 나타나는 서지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각경』의 간행은 국가기관인 교장도감, 대장도감과 간경도감과 총 13곳의 사찰로 나눌 수 있다.

敎藏都監에서 간행한 당시의 인본은 남아있지 않으나 간경도감에서 이를 저본으로 하여 번각한 판본이 남아있어 당시 인출한 판본을 추측할 수 있다. 대장도감에서 간행한 『원각경』은 팔만대장경에 속하는 것으로서 현재 판목이 해인사 범보전 39판가 10층 17-36번에 수장되어 있다. 간경도감은 불경의 국역과 간행을 관장하던 곳으로 일정한 체제와 양식으로 판서하여 정각한 것이 특징이다.

『원각경』을 간행한 사찰을 지역별로 나누면 전라도 4곳, 경상도 4곳, 경기도 3곳, 강원도 1곳, 평안북도 1곳이며, 종파별로 구분하면 조계종 7곳, 종파를 알 수 없는 사찰이 6곳이다.

둘째, 『원각경』 판본에서는 송판계통, 간경도감본, 을유자본, 을해자본 및 번각본의 자체가 두드러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송판계통은 당시 송판에서 유행하였던 구양순체의 특징이 드러나며, 간경도감본의 자체는 굵고 가는 원필의 한자와 가는 인서체의 한글이 조화롭게 인쇄되어 있는 松雪體이다. 을유자본의 자체는 을해자와 비슷한 송설체이지만 을해자보다 글자가 작고 획이 날카로운 편이다. 을해자본의 자체는 진체와 촉체가 두루 나타나는 진촉겸체이다. 을해자본의 번각본은 원본에 비해 균정하지 못하고, 후대로 갈수록 더욱 획이 거칠고 굵어지는 것이 나타난다.

셋째, 『원각경』에 나타나고 있는 도상은 총 3가지로 석가설법도상 2종과 경의 내용과 상관없는 도상 1종이 나타나고 있다.

선조 21년(1588) 운문사본은 智雲이 변상도의 밑그림을 그리고 義璉이 판각한 것으로 석가설법도 3면과 위태천 1면이 보인다. 철종 12년(1861) 건봉사본은 부처와 보살의 문답장면을 나타내는 변상도로 단순하지만 상징적인 구성이 특징이다. 고종 20년(1883) 봉인사본은 위패와 위태천 도상만이 나타나는데, 위태천은 내원암본 『불설아미타경요해』의 도상을 번각한 것이다.

넷째, 『원각경』의 간행에 관계한 경판간행질 및 시주질은 대부분 권말에 나타난다. 대화주는 보통 1-3명이 맡고 있고, 執務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다. 각수는 적게는 2명에서 많은 경우 53명까지 참여하였다. 연관, 별좌, 공양주 및 持殿 등은 후대로 갈수록 구체적으로 기입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며, 시주질은 20-870여 명으로 많은 인원이 관여하고 있었다.

## <참고문헌>

- 강순애.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의 복장전적고.” 『송광사 사천왕상 발굴자료의 종합적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6.
- . “고려 팔만대장경의 판각, 봉안 및 판가구성에 관한 연구.” 『대장경판 DB구축 및 3D영상사업 연구논문집』(2010). 1-41.
- 권상노. 『한국사찰전서』.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 김보형. “위태천 도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1.
- 김치우. “乙亥子本과 그 傍系字本考.”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7(1997). 27-59.
- 남권희. “경상도 지역에서 간행된 불교 서적에 관한 연구.” 『한국서지학논집』(1999). 351-456.
- 박도화. “朝鮮 前半期 佛經版畫의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8.
- 박정숙. “세조대 간경도감의 설치와 불전 간행.” 『부대사학』 20(1995). 35-77.
- 서울시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의 문화재』 4. 서울: 서울특별시, 2003.
- 윤병태. “世祖朝 大型活字考.” 『규장각』 8(1984). 77-101.

- 이성애, “三朝木版本考.” 『韓國文化研究院 論叢』 31(1978). 79-128.
- 조운호, “종밀의 『원각경』 해석에 보이는 제 사상의 수용.” 『범한철학』 45(2007). 77-98.
- 천혜봉, 『한국 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 . 『한국금속활자본』. 서울: 범우사, 1993.
- 한국국학진흥원 기초학문육성사업단. 2008. 『경남지역의 목판자료』. 경북: 한국국학진흥원, 2008.
- 한국불교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불교대사전』. 서울: 명문당, 1995.
- 허홍식, “惠居國師의 生涯와 行績.” 『한국사연구』 52(1989). 29-45.
- 황선엽, “一叢文庫本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口訣研究』 1(1996). 95-126.